

## ‘99 秋季學術大會 開會辭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장 권태영

존경하는 육군참모총장님, 친애하는 육·해·공군 고급간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99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우리 군의 중심인 계룡대에서 이처럼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회는 산·학·군이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학술모임입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26년동안 어렵고 복잡한 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전문가와 군의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인 분석방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즉, 사회의 전문지식을 군에 유입하고, 군의 좋은 점을 사회발전에 환원시키는 중개자 또는 교량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모임도 사회와 군간의 가교적 역할 선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는 우리 군이 사회를 선도한 분야가 적지 않았습니다. 군의 행정 및 경영방식이 정부와 기업으로 이식되고 군의 기술과 경험이 사우디 건설현장에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혁명/인터넷혁명의 시대에는 이와 같은 지식의 흐름추세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군이 사회의 비교우위 능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응용하지 않으면 막중한 국방과업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 군은 사회의 정보화 물결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정부가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우리 국방도 '전자국방'이 되어 국민의 군대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지식경영에 의해 저비용·고효율의 구조로 개혁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기

업의 새로운 지식경영 방법을 도입해서 경제군·효율군·능율군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신지식인·신기능인·신기술인으로 발전해 나가면, 우리군의 장병 개개인도 고지식·고기능·고기술을 습득해야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무한 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부'를 창출하면, 우리군도 '워넷'을 구축하여 전장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전법과 조직을 발전시켜야 그 사회와 어울리는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차차 '디지털 군', '전자국방', '지식국방경영', '신지식장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이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개통대에 모여서 「미래군 지식경영의 과업」이란 주제로 학술모임을 갖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그 의의 또한 깊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윤은기 국제기업전략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주옥같은 논문을 마련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발표와 토론이 우리 군이 지식경영을 바탕으로, 군 운영을 합리화하는데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무에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육군참모총장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육군 실무자와 학회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